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구주 강림의 이유

성경: 이사야 62장

Tag:

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
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
할 것인즉

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
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헝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빨라라 하
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
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
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가
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8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
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1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
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마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
라 하리라 (사62:1-12)

이사야서는 강림과 관련된 계시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은 구주 강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포부
가 담겨있다.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는 예루살렘 성과 그 가운데 있는 시온산, 시
온산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 관한 희망찬 메시지가 많다.

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
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
할 것인즉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예
루살렘은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도시를 상징한다.

.시온의 의는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의 의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를 말한
다.

.이 이상의 의는 세상에 없다. 사실 공산주의는 결코 의가 아니요,
자유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보다 낫지만, 그 또한 진정한 의가 아니
다. 오직 의는 하나님의 의가 진짜 의다.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재판관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통치자
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정한 정의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더 의롭고, 자기 편이 더 의롭다고 판단하지
만,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다. 겉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득이되는 사람이 의롭게 느껴지지만, 중심을 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예측가능하신 분이 곧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 메시야가 온 인류의 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시는 곳,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곳에 사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난다;창세기 15장의 아브람과의 언약이 그려진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 하셨다. 아브라함은 3년된 암소, 3년된 암양, 3년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 둘로 가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는 지고 어두워졌고 두려움이 임하는데,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계시적 사건이라 한다.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타는 햇불은 성령의 인치심을 상징한다. 즉,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햇불로 도장을 치신 셈이다.

-아브라함의 한 것은 믿고 순종한 것 밖에 없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네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죄사함의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과 구원에 관한 약속. (오늘날 교회에 이 복이 계승됨)

*구원이 햇불처럼; 이제 약속한 대로 구원이 햇불처럼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시온은 교회요,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도성이다.

교회의 의가 빛같이, 성도들의 도성에 성도들의 의가 햇불처럼 번져갈 것이다. 햇불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빛인데,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번져가는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의, 성도의 의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번져나간다는 뜻

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횃불이 성도들의 의의 빛이 도시에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실 것이다.

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와 입을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보고, 너의 영광을 보고 그 공의와 영광을 사모할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

3 너는 또 여호와와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며, 너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리라.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자가 아니다.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죄는 우상숭배.

-너는 헵시바라 불리리라;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이 땅은 빨라라; 나는 이 땅과 결혼 하였다. 나에게 언약의 땅이다.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믿음의 자녀들이 땅을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

나님이 성도를 기뻐하시리라. (구주 강림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복들)

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 파수꾼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고 지켜보는 자.
- 죄악이 도시에 퍼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자.
- 성도가 그 성에 살면서 죄악이 그 지역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 성도는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자이다. 기도에 동참하는 자가 되자.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까지 계속 찬송하여,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자!

8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 다시는 양식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겠다.
-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 권능의 팔로 원수들을 물리치시리라.
-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9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 오직 수고한 자가 자기것을 먹을 것이다. 공정한 세상.

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

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 뿐만 아니라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 만민을 위하여 기치-높이 솟은 깃발-을 들어라.
-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라.

11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
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 선포 하시기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다. 이제 메시아가 나타난다.
- 이제 상도 주시고, 보상도 해 주실 것이다.
- 이사야서에서의 구원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뜻한다.
-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

12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
라 하리라 (사62:1-12)

거룩한 백성인데,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된 자, 하나님께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
도성, 도시라 하리라.

우리가 그런 교회, 서울이 예루살렘, 한국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시므온의 사명

성경: 누가복음 2장 25-35절

Tag: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사람이더라.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사명자.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자.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오늘 내게 아이를 보낼 테인데 그가 그리스도이니 안고 축복기도 하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들어가지 아니하겠습니다?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사명이 끝났으니,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만민, 이방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

33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4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눅2:25-35)

-예언자 시므온.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메시야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사람이더라.

이스라엘의 위로; 율법의 완성, 제사제도의 완성.

-다윗왕의 재림? No~ 속죄 제사의 완성이 이스라엘의 위로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을 뿐,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죄문제 해결이 가장 큰 이슈였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념의 문제.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 주권의 문제. 운명과 사명의 문제. 진리와 거짓의 문제.

-피 흘림의 제사는 순간 순간 사람의 정체성을 리셋시키는 장치. 죄인을 다시금 순결하게 만드는 장치.

-왜 이스라엘의 위로냐?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있으면서 공정한 제사를 수행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약속대로 그 계약관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

-메시야의 가장 핵심적인 위업이 곧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제사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이며, 만민을 향한 영원한 대속의 길을 여는 것.

*예수님의 초림은 예정된 멸망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재림은 통치의 완성을 이루는 것. 왕노릇함.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교회를 통한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등불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하는 자들.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 오직 진리로 승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